

<특 집 I>

지식배움터에서 문화배움터로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문화기획팀*

지난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의 발간과 함께, 기업은 물론 사회 각 분야로 블루오션 전략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블루오션 전략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듭해온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가치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경영전략론이다. 이것이 기업에 국한

되지 않고 전 분야로 확산된 데에는 아마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가치혁신'이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기 때문이리라. 기존의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이 매력적인 전략에 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럼 도서관의 블루오션,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실마리는 바로 이 전략의 필수조건인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에 있다.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에서는 지난해 Taskforce팀의 하나로 관내 문화기획팀을 만들었다. 처음 문화기획팀이 발족될 당시만 해도 도서관에서? 문화를? 왜? 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도서관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고 인식시키는 데 노력했고, 그 성과가 도서관의 블루오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문화기획팀 : 왼쪽부터 김현, 유은미, 박재섭 권장, 조선영, 이고희, libgh@inje.ac.kr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왜 '문화'를 이야기하는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이 이제는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문화'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문화라는 것이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창조해 내기 시작한 모든 정신활동과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도서관의 블루오션으로 삼는지 일견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뒤집어 보라! 책이라는 것도 인류의 가치와 지식이 총체되어 있는 결집체이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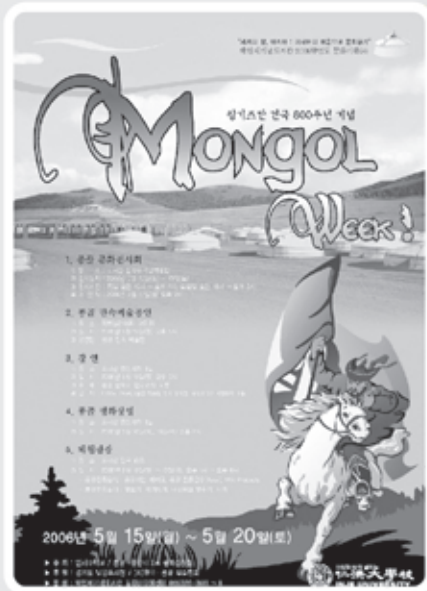
문제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문화에 대한 배려나 정책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백인제기념도서관에서는 문화기획팀을 새로 만들었다.

우선 우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주목하여 '우리문화, 우리삶의 소중한 알리기'를 주제로 2005년 한 해 동안 총 열 세건에 달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치러냈다. 이를 통해 14,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사실보다도 조금이나마 우리 문화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소득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처음에 도서관에서 주최한다는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해 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더 체계적이고 또 믿음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나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도서관이 친근한 곳으로 이용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감이 도서관에 대한,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이어졌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적인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문화적 수혜에서 비껴서 있는 지역주민(경남)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학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곳(?)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도서관이 여러 문화행사를 통해 생동하고 움직이는 단체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도 나름의 큰 수확이라고 본다.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세계의 창, 아시아 : 아시아의 마음으로 문화 읽기'라는 문화행사를 기획중이다. 지난 3월 그 첫 번째로 재팬위크(Japan Week : 3/13~25)를 열었다.



대학에서는 최초로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공동 주최한 일본문화전시회를 비롯 일본현지에서 초청한 공연단 등 다양한 행사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5월에는 몽골 위크를 준비 중이다. 몽골문화전시회를 비롯 몽골영화제, 몽골음식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진다.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치를 재발견하고, 아시아의 역사와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데 작은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블루오션은 사실 가까운 데 있다. 조금만 사고를 비틀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지식과 정보의 배움터였던 도서관이 이제 문화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문화의 배움터를 맡아주면 어떨까. 